

“행복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전남유아교육’ 실현”

전남교육청, ‘전남유아교육 2021’ 온라인 설명회 개최

포스트코로나시대 변화 대응 위해 미래유아교육체제 구축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2021년 유치원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미래형 유치원 운영 및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미래유아교육의 발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1일 공·사립유치원 전임 원장(감), 공립 겸임원장(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장학사 등 560여 명을 대상으

로 ‘전남유아교육 2021’ 온라인 설명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올해 유치원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유치원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래교육체제 구축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미래형 유치원 연구학교 운영(2개원) 및 교육콘텐츠 개발·지원, 교육과정 현장지원

단 및 유아주도 놀이지원단 구성·운영 등이 그 구체적 실천방안이다.

또, 현장 자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연수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아교육 공공성 및 유아·놀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는 목표와 4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4가지 중점과제는 △ 놀이로 배우는 행복한 유아 △ 따뜻하고 열정 있는 교원 △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 건강한 삶을 가꾸는 안전한 유치원 등이다.

이를 위해, 대면·비대면 교육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콘텐츠 지원을 통해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현장에 안착하고, △ 놀이와 힘이 있는 방과후과정 운영 △ 코로나19에도 지속적인 돌봄교실 운영 △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 다문화교육 △ 유·초 연계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모의 유치원 교육활동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학부모회를 운영하며,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을 통해 학부모의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더욱 늘린다. 2021년에는 유아학비를 월 2만원 씩 인상해 공립은 월 13만원, 사립은 월 33만원

씩 지원한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은 자체 사업으로 유아당 월 5만원 유아 교육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의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 만 5세아에 지원했던 급식비도 올해는 만 4-5세 유아까지 지원함으로써 무상교육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정중혁 유초등교육과장은 “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해 공교육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유아를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유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광주시교육청,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 관리자 역량강화 직무연수’

공립유치원 교원 대상...유아·놀이중심교육과정 교육력 제고

광주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원장·원감·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18~21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총 2기에 걸쳐 ‘2021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 관리자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유아·놀이중심교육과정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변화를 돕고 유치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했다.

연수는 ▲행복한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존중과 봉사의 리더십 ▲소통과 공감의 유치원 문화 만들기 ▲유아·놀이중심교육과

정과 초등학교 1학년과의 한글 책임교육 연계 ▲유아교육 정책 공감 토크 등으로 구성됐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수 인원 소규모 운영, 강의실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유아교육 정책 공감 토크’에 참석해 유치원 현장에서 고생하는 유치원 교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광주유아교육의 정책 현안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세미르유치원 박경옥 원감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며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은 존중·배려·소통·협력을 통해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돼야 함을 깨달았다”며 “다양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던 이번 직무연수는 유아

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몰입하는 놀이가 진정한 배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강영 과장은 “미래교육을 위해 유아·놀이중심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연수를 매년 정례화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진로 진학 고민해결’ 겨울방학 진학 프로그램

여주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관내 고등학생 대상

여주시가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 진학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며, 여주시행복교육지원센터 제1강의실 및 상담실에서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학교생활기록부 디자인 특강’, ‘1:1 맞춤형 진학상담’ 2개로, 새학기 학교생활 기록부 설계 및 관리와 진로·진학 컨설팅, 최신 입시정보 제공 등 다양한 상담의 장을 마련한다.

‘학교생활기록부 디자인 특강’은 고1은 1월 30일, 고2는 2월 5일, 고3은 2월 6일로 각 20명 씩 모집한다.

‘1:1 맞춤형 진학상담’은 고1부터 고3까지 2월 17일과 20일, 24일, 27일에 총 4회, 96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특강은 20일부터 26일까지, 진학상담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여주시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yeosu.go.kr/edu)에서 신청하면 된다.

여주시 신영자 교육지원과장은 “새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진학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학생 및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보성교육지원청, 함께 보살피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시작

초기문해력(한글해독) 지도자 역량강화 연수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관)은 21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돌봄전담사, 학부모, 학습심리상담사, 학습코칭단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초기문해력(한글해독) 지도자 역량강화 연수’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번 연수는 5주간 운영되며, 코로나 19로 인해 늘어난 학습부진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초기문해력(한글해독) 신장을 목표로 기초학력 전문가 양지숙(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관)과 함께 △한글교육의 중요성 인식 △다양한 요인에 의한 한글 미해독 및 읽기곤란 교수·학습 방법 등, 이론과 실제를 병행한 실용연수로 진행된다. 교육지원청 기초학력 담당자는 “정규 교육

과정 이외 학생들을 돌보는 돌봄전담사, 학습코칭단, 학부모의 초기문해력 지도 역량 신장으로 담임교사와 발달준 내실있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이번 연수의 취지를 밝혔다.

연수 첫날, OO초등학교 돌봄전담사 OO는 “돌봄시간에 한글해독이 안되어 과제해결이나 책임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고, 담임교사와 연계하여 기초학력 책임교육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연수에 대한 강한 열정과 의지를 나타냈다.

김한관 교육장은 “다함께 보살피는 기초학력 책임교육의 첫걸음인 이번 연수에 열정을



갖고 참여한 학부모, 돌봄전담사, 학습코칭단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갖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기초학력 책임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보성=김택순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